

12월 18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1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급등부담으로 하루만에 약세 [다우: 8,824.34pt (-1.12%)]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늘어난데다, 모간스탠리의 부진한 실적이 영향을 받아 뉴욕증시가 17일(현지시간) 폭등 하루만에 약세로 돌아섰음.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가 소매주 랠리를 이끌며 장중 한 때 뉴욕증시의 반등을 이끌기도 했지만, 유가급락에 따른 에너지주 약세와 씨티그룹 등 금융주 부진 등으로 뉴욕증시는 다시 약세로 밀렸음.
OPEC 감산에도 국제유가 폭락 [WTI: \$40.06 (-\$3.54)]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알제리에서 모임을 갖고 하루 220만배럴의 감산을 결정했음. 앞서 알리 알 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OPEC이 하루 200만배럴 감산에 합의를 본 상태"라고 밝힘.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최소 200만배럴 이상의 감산결정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였음. OPEC의 감산결정에 곧바로 합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등 非 OPEC 국가들이 감산에 나서지 않은 점이 부담을 줬음.
모간스탠리, 부진한 실적발표	모간스탠리는 개장전 실적발표에서 4분기 순손실 규모가 월가 전망치인 34~35센트를 크게 앞선 수준인 주당 2.2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특히 애널리스트 가운데 주당 1달러 이상의 손실을 예상했던 경우가 극히 드물 정도로, 모간스탠리의 이번 실적결과는 좋지 않았음.
애플, 스티브 잡스 건강 이상설로 약세	미국의 대형 백화점업체인 메이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간체이스와 20억달러의 크레딧라인을 재설정했다고 밝힌 점이 호재가 돼 급등세를 보였음. 메이시는 내년중 9억 5,000만달러의 채권만기를 앞두고 채무 상환능력에 대해 의혹을 받아왔으나 20억달러의 크레딧라인이 재설정했다는 소식으로 메이시 백화점은 20% 이상의 폭등세를 보이며 소매관련주의 랠리를 주도했음.
유럽증시 보합..英 상승, 佛.獨은 하락	유럽 증시가 17일 미국발 혼풍과 은행의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면서 보합세.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 100 지수는 0.35% 오른 4,324.19를 기록한 반면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 40 지수는 0.30% 하락한 3,241.92,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 지수는 0.46% 내린 4,708.38로 장을 마감.
유럽의회, 온실가스 20% 감축 포괄대책안 가결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17일 오는 2020년까지 역내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줄이는 것 등을 목표로 하는 지구온난화 대책 포괄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 이로써 EU는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의욕적으로 삭감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최대 걸림돌을 제거.

제목	주요 내용
유럽도 체로금리 압박 … 중(中), 추가인하 검토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금리 인하 행보도 보다 빨라질 것. 영국은 금리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각종 경기 지표가 계속 악화돼,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 중국 인민은행도 추가금리 인하를 검토.
日 정부 12월 경제진단 또 하향한다	일본 정부가 이달중 다시 경제관련 평가를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이미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자본지출 축소와 감원 등에 따라 7년래 가장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상태. 경제전망을 다시 낮출 경우 3회 연속 하향은 물론 올해들어서는 일곱번째.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한도 15% → 30%확대 검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자본의 15%로 제한된 하이브리드채권의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이 `논 이노브티브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최대 30%까지 기본자본 비율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증권사 잇따라 흑자전환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지난달 잇달아 흑자 전환에 성공함. 이는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신용스프레드가 줄어들어 시장거래가 늘어나고 채권평가이익이 늘어난데 따른것으로 보임.
OECD "韓 외환보유고 고갈 통한 원화 받치기 피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가 글로벌 경기후퇴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재정 부양책을 활용하고,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외환보유고 고갈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1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